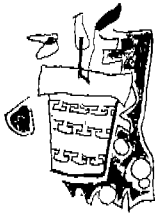


## 학 동 기 의 심 리



구 본 권

<삼육아동재활원임상심리실 · 심리학자>

### I. 서 론

인간이 탄생하여 처음으로 맞는 사회는 가정  
이요 처음으로 맞는 사람이 부모이며 여기서 배  
우는 것은 다음단계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다.  
보통 가정을 한 인간의 최초의 학교라고 할도 그  
런 이유에서 보고있다. 더우기 새로운 것을 습득  
하도록 하여주는 가족과 그로부터 받은 영향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한다.

다시말하면 아동은 그들의 부모의 태도나 기  
대로서 그들의 성격의 바탕이 형성되거나 생활  
에서 기억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후의 학동기나  
성인의 생활에 까지 거의 대부분 옮겨간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이나 이론은 이미 인류학자들  
의 연구와 프로이드 이후의 정신분석학파에 의  
하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 갖는 특수한  
배경에 따라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 등이 아동의 심리적 행동으로 어떻게 형성  
되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Ⅱ. 발달에서 본 학동기

학동기는 보통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는 6세부

터 12세까지의 학습생활이 시작되는 국민학교 1  
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그 구  
분은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구분이지 정신연  
령(Mentalage)이나 심리적 성숙(Psychological  
mature)으로 말하는 학동기는 서로 다른 기  
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략 국민학교  
3학년 8, 9세를 아동초기라고 보고있으며 학동말  
기나 사춘기초기를 11세경에서 14세경까지로 보  
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지리적, 시대적,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분되  
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2세  
나 13세까지로 보는 사람이 많다. 쉽게 국민학교  
시절을 학동기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누구나 人間은 유아기의 연장까지 부모의 절  
대적인 보호를 받다가 서서히 떨어져 생활하는  
시기라는 점과 발달심리학에서 自己中心이나 신  
체변화에서 서서히 정신개발과 질병의 위협에서  
탈피되는 시기이므로 체력의 증장 뇌기능이 활  
발하여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을 통제하면서 사  
물의 현상을 점점 객관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成人과 비슷할 정도로 뇌기능이 지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시작되며 추리, 비판 창조력이

눈에 띄게 발달한다. 이런 것은 유아기의 놀이에 대한 흥미가 학습에 대한 흥미로 옮겨지면서인데, 국민학교 3, 4학년까지는 놀이와 생활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지만 아동후기부터는 심신발달과 함께 지식이 풍부해져 주로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동기는 놀이와 학습이 구별되고 과학적이고 지적인데 흥미가 증대하기 때문에 지식생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발달심리학에서 본 학동기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1. 취학에 의하여 생활환경이 현저히 변화한다.
2. 신체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보이며 활동적이다.
3. 놀이에서 일(Work)로 분화발달한다.
4. 지적발달이 현저하여 소위 생활인의 시대를 이룬다.
5. 사회성이 현저히 발달하여 사회적 행동이 확대된다.
6.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며 정서표현이 차차 다양해진다.

이런 특징을 다시 신체적 발달,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의 특징으로 나누어보고 학동기의 심리적 행동특성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 Ⅲ. 신체적 발달의 특징

생후 1, 2년간의 신체적 발달은 현저하지만 2, 3세 경에서 13세경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동기에 있어서 신체적 구조는 안정을 이룬다. 그리하여 신체적 근육운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만한 나이의 어린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체주넘기를 하며 술래잡기, 기어오르기, 병사놀이, 권투놀이, 그네뛰기 철봉에 매달려 몸을 흔드는 것 등 스틸이 있는 놀이들을 즐긴다. 학동기의 신체적 특징은,

1. 뛰며 달리는 놀이를 즐기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2. 혼자 옷을 입는 것, 신을 신는 것, 목욕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나 능숙하지는 못하다.
3. 위협한 장난을 즐긴다.
4. 신체적으로 남과 개인차를 비교한다.

5. 자신의 기호에 의한 활동을 즐긴다.

### Ⅳ. 사회적 발달의 특징

사회적 행동은 유아기에도 다소 나타나 보이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는 시기는 아동후기에 있어서이다. 연령적으로 본다면 6, 7세에서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경부터 13세 청년전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은 지금까지의 가정이나 이웃 속에서 혼자나 들이서 놀던 것에서 그들의 또래들과 (Peer group) 사회집단을 형성하여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면서 논다든가 공동으로 물건을 산다든가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즐긴다. 여기서 그들은 안정감 소속감 친밀감을 느낀다. 그리고 집단내에서 리더를 가지며 리더의 지휘 아래 그들 집단 성원간에 협동과 동정심을 배우며 의식적으로 활동한다. 때로는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으나 그러한 경험은 다음의 성인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들의 기본적인 사회의식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집단에 대한 협동 이기주의 배제, 성인사회에 필요한 규범과 도덕을 체득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도피와 같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다. 이런 것도 학동기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란 점을 잘 이해하고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적 발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1. 단체유희에 흥미
2. 남녀 혼성놀이
3. 선생님의 의견을 순종하며 존경한다.
4. 유희(play)학습에서 경쟁이 시작된다.
5. 경제적 사회적 고려에서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다.
6. 자기 가정과 남의 가정을 비교한다.
7. 집에서보다 집밖의 놀이를 더 즐긴다.
8. 다른 집에 외출할 줄 안다.
9. 단체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흥미로 생각한다.
10. 돈의 가치에 눈을 뜬다.
11. 친구 사귀는 것이 넓어진다.
12. 예능이나 「메스컴」의 인기 연예인에게 관

심이 높다.

### V. 정서적 발달의 특징

학동기의 정서는 유아기와 청년기가 조금씩 중복되는 시기이나 비교적 안정되고 확실한 발달을 계속하는 시기이며 특히 정서면에서는 유아기나 청년기 보다는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 행동에는 의지적 성질이 강한 것과 반대로 감정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있다. 보통 전자를 욕구, 후자를 정서라고 한다면 유아기에 욕구는 음식물에 대한 욕구같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물학적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계속진행하여 학동기에 있어서는 한층 더 분화확대되어 여러가지의 다른 요구의 분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학동의 생활환경이 가정 중심에서 학교나 이웃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동기의 중요한 요구는

1. 음식물에 대한 요구가 유아기에서 계속되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 객관적 지식에 대한 요구.
3. 집단생활에 대한 요구.
4. 자기 주장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자기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경쟁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의식은 학동기에 있어서 현저히 발달하는 하나의 사회적 활동으로서 놀이에서나 학업에서도 구름간에 있어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정서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人間の 탄생이후 최초의 정서는 미분화된 일반적인 흥분상태이며 특수한 정서는 생후 3개월경에서 부터 즐거운 것, 노하는 것등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화된 정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 정서가 되어 우리의 일생을 통한 精神生活의 기초가 된다. 유아기나 학동기의 정서는 청년기나 성인들의 그것에 비해서

1. 변화가 심하며
2. 일시적이다.
3. 표현이 강렬하며
4. 빈번히 일어난다

그러나 유아기나 청년기에 비하면 꼭 안정된 시기라고 보겠다. 대체로 학동기에 정서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은

1. 수줍어 한다
2. 성격의 차이가 나타난다
3. 침묵을 지키며 적대감정을 갖는다
4. 손톱을 깨물거나 물어뜯는 습관이 보인다.
5. 고독한 표정이 자주 나타난다
6. 비밀을 필요로하는 생각을 한다
7.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 나의 부모가 아닌가 의심한다
8. 직설적이며 감정적이다
9. 무엇이든지 부러워한다

그러나 유아기나 청년기에 비하면 꼭 안정된 시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서의 문제가 그로인하여 적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취급하기 쉽다고 말할 수도 없다. 대개 아동은 꽃밭이나 집주위에서 개미떼를 보면 큰소리를 치고 야단이 난다. 장난감을 사다주면 친구나 집사람들에게 자랑을 시키려고 분주하지만 며칠 못가 싫증을 느낀다. 모르는 친구와도 잘 놀며 학교선생님이 전학을 하면 섭섭하다고 눈물을 흘리던 여자어린이도 곧 뛰어논다. 또 부부나 학교에서 구증을 들어도 곧 풀어진단다. 이렇게 아동이 느끼고 부닥치는 감정들이 솔직하며 흥분적이지만 곧 그전 상태로 돌아가며 다시 그런 감정이 반복되면서 이성(理性)으로 보는 눈이 발달하여 간다.

### VI. 학동기의 심리적 행동의 특성

#### 1. 환경이 넓어진다.

학동기에는 입학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서 관련되는 동년배의 관계나 사회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겠다. 이런 것은 가정에서는 별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던 것이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과 지내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미 가정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또 가정문제로서 나타나면서도 실제로는 학교생활, 집단생활, 학습생활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미 유아기에서 기르지 못했던 기초적인 사회성이 입학을 계기로하여 표면화되어 고립이나 열등감의 원인이 되며 오히려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가정생활에 영향되어 이 양자의 상호관련의

문제가 일어나며 이런 절에서 유아기와 다른 절으로 구별될 수 있다.

### 2. 새로운 일은 전부 해보고 싶다.

학동기의 어린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영, 유아를 통한 어느때보다 재미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자발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하며 재미있게 생각되는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남자들이 더하다. 성냄으로 아버지 담배를 붙여주기를 좋아하며 빨레하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옷을 빨다고 참견한다. 옷을 입혀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입는다. 입혀준 옷까지 벗어서 처음부터 다시 옷을 자기 스스로 입는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일에 자신(自信)과 독립심이 발달하게 되며 자기일을 스스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잔 심부름을 하여 주기도 한다.

### 3. 질문을 많이 한다.

학동기에는 무엇이든지 의문점을 풀고 의견을 내세우며 관찰한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엄마 눈이 왜 오지, 왜 어름이 얼지, 이렇게 천진스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 날에는, 일일이 쫓아다니며 물어보기도 하며, TV에서 기성인의 대화나, 영화의 장면등에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질문을 한다. 이런 때 귀찮아 소리를 지르거나 ‘어색하게 생각되어 얼버무려 버려지려한다. 그러면서도 어른들은 우월감을 손상하는 것처럼 위협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 4. 어른들의 모든 것을 모방한다.

어린이가 세상에 태어나 행동이나 경험의 영역도 좁지만 생각도 단순하다.

언어도 나아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배우며 습득된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특징을 집에 오면 집이 떠나가도록 일일이 설명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의 옷, 머리모양까지도 설명을 한다. 아침에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이 저녁이면 닮아서 행동한다. 이렇게 남에 의한 행동이 민감하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 것까지는 판단을 못한다. 구분권의 교사의 태도가 아동들에 미치는 학습, 생활태도, 가치관에서 교사의 언어, 습관, 글씨, 행동

때문에 아동의 언어 습관 행동 가치관까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런 영향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관계도 무척 높게 나온 바 있다.

### 5. 자기 생활을 누리기 원한다.

어머니 품에서 도운만 받던 어린이는 좀 서투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생활이 진행된다.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여진다. 세수를 하는 것부터 잘때 발을 닦고 자는 일까지 자기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친구, 학교에 책상,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기도한다. 이런 생활이나 요구를 간섭받거나 친해를 받으면 무척 싫어한다.

### 6. 자업을 탐구한다.

학동기에는 책을 읽거나 옛날이야기를 듣거나 라디오에서 방송동화를 듣거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 기분으로 읽어낸다.

동물들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강아지를 아끼고 위하고 한다. 먹이를 주며 잘때도 데리고 자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동물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상처를 입은 새나 어미를 잃은 동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며 동정한다. 꿀을 씹어 맛을 보기도 하며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하고 소방차가 지나가면 뛰어나가 큰불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구경을 다닌다.

집 수리를 하거나 길거리, 공사장에 가던 신기하게 구경을 하며 진흙이 발에 묻어도 상관없이 뛰어다니며 기마경찰이나 경관총수신기에 흥미가 있으며 빗물이 고인 곳을 보면 장화를 신진 안 신진 기분이 좋아라 물위를 뛰어다니며 비눗물을 만들어 날리기도 하며 국군의날 행진이 더없이 즐겁고 여름이면 들과 숲을 싸다니며 곤충 채집 식물채집을 즐겨하며 여름이면 어름덩이를 얻으려고 어름장사를 뛰따라 다니기도 하고 나무토막을 얻으려고 목공소를 기웃거리기도 한다.

### 7. 용모에 관심이 생겨진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온 옷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대며 여자들은 거울 앞에서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배운다. 그렇지만 친

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으려고 하며 색다른 옷이나 모양이 이상하면 입기를 거절한다. 머리에 물기를 발라 가르마를 타주면 아이들이 놀리거나 창피하다고 싫어한다.

### 8. 질투도 많다.

음식을 먹을때도 형제와 비교한다. 학용품, 의복에 대해서도 경쟁이 생긴다. 서로 아버지를 독차지하려고 들고 서로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든다. 선생님이 자기만을 사랑하여 주기를 바란다. 자기와 놀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면 싫어한다. 이런 것은 다분히 자기만 인정하여주길 바라는 요구가 발달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9. 이성에 의문이 생긴다.

9~10세가 되면 남자어린이들은 여자에게 거리감을 갖는다. 그러나 재미있는 놀이에서는 구별없이 잘 논다.

남자는 여자를 약하게보며 여자는 남자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이상한 물건이나 벌레같은 것으로 여자를 놀려주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누나나 여동생이 옷을 갈아 입을때면 숨거나 피하듯 한 이불속에서 자기도했던 것이 점점 거리를 느끼는 생활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성별의 차이를 두게되어 차츰 이성의 호기심으로 발전한다.

어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발전하여 사춘기까지 끌고가게 된다.

### 10. 싸움을 하며 자란다.

어린이들은 싸우면 나쁘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들어왔다. 그러나 학동기 어린이들은 싸워서 울거나 어 떤가 상해서 들어오기 일수이다. 형제와도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동생이 형한테 대들기도 하며 형이 동생을 못살게 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원수같은 형제라도 다른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때림을 당하면 형제와 합심하여 뽀뽀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싸우기 일수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싸움을 하며 자란다고 한다. 강제철 교사의 조사에 의하면 싸움은 일주일이면 3회정도 한다는 학생이 전체에 65%가 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싸우는 이유중에 「전드리거나 빼리기 때문」이라고 제일 많이 지적했는데

침해나 괴롭힐때라고 보고있는데 여학생들은 「자신과 가족의 모욕때문」에 싸운다고 지적했던 점은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많다. 여기서 싸운 어린이들은 50% 이상이 전과다름없이 친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자신들의 공격적 욕구와 갈등을 발산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있다.

## VII. 학동기의 문제점 몇가지

1. 아동의 능력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학업 스포츠 에능의 습득면에서 성인의 기대와 아동의 요구와 흥미 및 발달과의 차이 상대적인 경쟁 성공 실패등에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인데 더우기 우리나라 교육열은 부모의 기대와의 차이에서 학동기에 주는 심리적 영향은 상당히 크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른들의 기대가 강력하게 뒤따라 오는 까닭에 도리어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또 아들과 딸의 편중된 가치관은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 많이 있음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2. 아동의 세계와 성인의 세계와의 모순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문제이다. 학동기는 대체로 단순하고 어린이다운 사고방식 이론체계를 가지게 되며 거기에 입학한 요구가 반드시 부모나 사회일반의 것과 합치되지 못하는데 어른에 의한 아동의 세계의 인정못하는 것 압박동일 것이다. 이런문제에 파생되는 학동기의 비뚤어진 행동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서적인 혼란은 유아기와 같이 간단히 취급할 수가 없으며 또한 청년기처럼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아동기의 심리적인 문제의 지도상의 곤란한 점도 있다.

어쨌든 학동기 어린이들이 느끼는 방법,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어린이 세계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이요 이 시기의 심리의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며 지도하지 않으면 문제의 기본적 해결은 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